

웅장한 클래식으로 새해를 힘차게

17일 여수 예술마루 신년 음악회
부산시향·바이올린 신지아

광주시향 24일 문예회관
부조니·반 클라이번 우승
피아니스트 안 이라첵 협연

2019년을 시작하는 웅장한 클래식 무대가 광주·전남에서 잇따라 열리며 관객에게 새해 희망을 전한다.

먼저 새해를 알리는 선율은 오는 17일 여수 앞바다에서 시작된다. 이날 오후 7시 30분 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 대극장에서 열리는 '2019 예술마루 신년음악회'는 지휘자 최수열이 이끄는 부산시향과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가 꾸민다. 최수열은 지난 2017년부터 부산시향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1일 열린 세종문화회관 신년음악회에서 서울시향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 중 피날레'로 문을 여는 이날 무대는 푸치니와 차이콥스키의 자유로운 음악세계를 느낄 수 있는 기상곡(奇想曲)들로 꾸며진다.

만 20살 나이에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5위를 기록하고 프랑스 퐁-티보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국제 무대의 주목을 받은 신지아는 이날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로 무대에 오른다. 신지아는 바이올리니스트에게 필수 레퍼토리인 이 곡을 통해 고난도의 기교와 깊은 음악성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어 푸치니의 '교향적 기상곡'과 차이콥스키의 '이탈리아 기상곡'을 연주하며 간단한 구성 속에 담긴 작곡가 특유의 기



오는 24일 신년음악회 '더 로즈'를 여는 광주시향.

(광주일보 자료사진)



신지아



안 이라첵

교적인 화려함으로 새해 희망찬 분위기를 자아낼 예정이다.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학생 15%·패키지 할인). 문의 1544-7669.

광주시립교향악단(시향)은 신년음악회

'더 로즈'를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연다. 340번째 정기연주회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김홍재 시향 상임지휘자가 지휘봉을 잡고 피아니스트 안 이라첵 폰 아르님이 함께한다.

올해 첫 시향 음악회의 문을 여는 곡은 니콜라이의 '원저가의 유쾌한 아낙네들' 서곡이다. 셰익스피어의 동명 희곡을 오페라로 만든 작품으로 경쾌하고 신나는 리듬과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 노르웨이의 작곡가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16'을 안 이라첵 폰 아르님과 협연한다. 2001년 최연소 빈 국립음대 교수가 된 안 이라첵은 반 클라이번·부조니·마리아카날스 콩쿠르에서 우승

한 화려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2011년부터 '베토벤 국제 피아노 콩쿠르 비엔나'의 예술감독 겸 회장직을 맡고 있는 그는 베를린 필·성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꾸준히 협연무대를 갖고 있다.

후반부는 '장미'를 다룬 요한 슈트라우스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왈츠 음악을 만난다. 먼저 요한 슈트라우스 '남국의 장미'로 아름다운 선율의 왈츠를 선보이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오페라 '장미의 기사' 모음곡을 무대에 올린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524-508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소춘만福래’

소춘아트팩토리 19일 농악놀이·축원덕담 등 진행



소춘아트팩토리는 지난해 7월부터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예술공장 토요일문화만찬'을 열어왔다. 공연과 디지털을 결합한 프로그램도 많은 이들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예술공장 토요일문화만찬 시리즈를 결산하고 만복을 기원하는 신년 특별 기획 공연 '소춘만福(복)래'가 오는 19일 오후 4시 소춘아트팩토리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해의 만복을 기원하는 사물놀이, 웃다리농악, 전통춤 흥 넘치는 공연이 진행된다. 웃다리농악은 연초에 사자를 쓰고 마을을 돌면 나쁜 액들은 몰아내고 만복이 들어온다고 전해져 많이

행해졌던 농악놀이다. 그밖에 길놀이, 비나리 등 전지개벽, 축원덕담 등 앞날의 행복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공연은 '아리술'과 '놀이꾼들 도담도담'이 맡는다. '아리술'은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다양한 전통문화 예술 공연을 펼치고 있는 농악단체며 '놀이꾼들 도담도담'은 전통예술의 현대적인 공연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전통 예술단체다.

이번 행사는 광산구와 아리코공연연습센터@광주 공동운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소춘아트팩토리가 협력해 진행한다. 공연 관람 이후에는 커피와 다과를 제공하며 입장 선착순 50명에게는 복주머니가 제공된다. 티켓 5000원. 문의 062-960-3689.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소장작품전

본관 27일까지 '남도의 빛과 바람'

1930년 이전 광주·전남·전북 출생 작가 40명

'빛과 그림자의 기억' 사진전시관 내달 17일까지

1950년대 광주역 등 광주·전남 변천사

미술관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다양한 작품을 수집하는 일이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이 소장작 중 엄선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소장작품전을 열고 있다. 전시는 광주시립미술관 본관과 사진전시관 두 곳에서 진행중이다.

광주시립미술관 본관에서 열리는 소장작품전 '남도의 빛과 바람'(27일까지)은 남도화단의 대표적인 예술가와 작품들을 살펴보는 자리다.

지난해 열린 '남도가 낳은 예술가들' 후속인 이번 전시는 1930년 이전 광주와 전남·북에서 출생한 작가 40명의 작품 60점으로 이루어지며 한국화, 서양화, 서예, 사진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한국동원 그리고 근대 화사기를 관통하는 불운한 시대를 살아갔던 지역 미술인들과 그들의 아름다운 작품을 조명하는 전시로 허형·허형·김보현·임직순·백영수·양인옥·조방원·하남호·김영태·김흥남·김형수·조기동·오승우작가 등 40여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613-7100.

광주문예회관 옛 광주시립미술관 자리에 2016년 문을 연 사진전시관에서 소장작품전을 진행중이다.

오는 2월17일까지 '빛과 그림자의 기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사진전시관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소장품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로 모두 54점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작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 인물사진과 함께 광주·전남의 변화된 모습과 문화 등 시대의 변천사를 한눈에 담은 작품들이다. 학생들이 몰려들어 한 교실에서 3부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담은 풍경, 땀방울에서 일하는 아낙네의 모습 등을 만날 수 있으며 개량한 복에 양산을 쓰고 철길을 걷는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 1950년대 광주역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작품도 눈에 띈다.

전시작은 강봉규의 '봄을 부르는 소녀'(1982), 나경택의 '복도에서 수업'(1974), 송진화의 '광주역 부근'(1956), 이동명의 '노력'(2001), 이진권의 '들샘'(1960), 전오남의 '서석대 풍경', 최병오의 '염전' 등이다. 무료 관람. 문의 062-613-540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승우 작 '집창방'



나경택 작 '복도에서 수업'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대한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특허공법

주택 맞춤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100초등학교 맞춤디자인 시공후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투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을 소리...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